

‘김지현 9골 폭발’ 광주도시공사, 5경기 만에 웃었다

대구시청에 27-26 승...서아루·송혜수·이민지 등 활약

광주도시공사가 김지현의 9골 활약에 힘입어 대구시청을 27-26으로 꺾고 시즌 2승째를 거뒀다. 광주도시공사는 30일 광주 빙고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에서 5경기 만에 승리하며 2승 1무 4패(승점 5점)를 기록했다.

초반 패스 미스로 끌려가며 고전한 광주도시공사는 김지현과 송혜수의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15분 광주도시공사 김지현의 돌파 골로 6-6 동점이 만들어졌다. 전반 17분에는 서아루가 김금정에게 넘겨받은 공을 골망에 때려 넣었다. 이후 정현희, 김수민, 김지현의 연이은 득점으로 10-6까지 앞서지만 연속 실점이 나오며 12-10으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전에서 광주도시공사는 7명 공격 전략을 활용해 역전에 성공했고 이후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후반 8분 광주도시공사 김수민의 득점으로 16-14, 대구시청 정지인이 빈 골대를 노렸다.

후반 10분 광주도시공사 송혜수가 득점하며 17-15가 됐지만, 대구시청 노희경의 골로 다시 한 점 차가 됐다. 광주도시공사 김수민의 득점 후 대구시청 노희경의 9m 골로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됐다.

이후 서아루가 깔끔한 윙플레이로 득점에 성공했고, 김지현이 연이은 도움을 받아 추가로 점수를 올리며 광주도시공사가 20-17로 앞서 나갔다. 화력이 붙은 광주도시공사는 송혜수와 김지현의

활약으로 후반 20분, 24-20까지 달아났지만 대구시청의 끈질긴 추격이 이어졌다. 후반 21분 대구이원정의 득점에 이어 정지인의 강력한 슈팅이 골로 연결되며 24-22로 점수 차가 좁혀졌다.

후반 24분 서아루가 왼쪽 윙에서 득점하며 25-22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대구시청 허수림과 노희경이 연속 득점하며 25-24로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다.

26-25로 앞선 경기 종료 2분 전, 김지현이 돌파로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골키퍼 유정원은 후반 28분 대구 노희경의 7m 드로우를 막아내며 승부의 흐름을 지켰다.

종료 30초 전 대구 김희진이 득점하며 27-26이 됐지만, 경기 종료로 알리는 휘슬이 울리면서 광주도시공사가 이번 시즌 홈에서의 첫 승리를 거뒀다.

김지현은 9골 2도움을 기록하며 경기 MVP에 선정됐다.

김지현은 “지는 경기가 많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됐는데 오늘은 이길 수 있어서 좋았다. 홈에서 하는 세 경기는 다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서아루를 상대로 비껴서, 대구·부산을 꼭 이겨야겠다 생각했다. 오늘 경기를 토대로 다음 경기도 이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경기 시작 전에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건 없다”고 다 같이 얘기를 했다. 혜수 언니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바깥 찬스가 많이 났던 것 같다. 초반에 패스 미스 난 것도 있었지만 이후에 더

신중하게 패스하려고 하고, 받는 사람도 움직이면 서하다 보니까 실수가 줄어든 것 같다”며 “오늘처럼 자신 있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팀의 승리에 서아루(5골)와 송혜수(5골 4도움) 그리고 13세이브를 기록한 이민지 골키퍼의 활약도 있었다.

송혜수는 “1라운드 마지막 경기라 승리해서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꼭 이기자는 마음으로 뛰었다. 내가 안 풀릴 때는 지현이가 통솔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풀어주고, 또 (서)아루 언니도 윙에서 좋은 역할을 해줘서 경기 잘 풀어나갔던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전반전에 우리가 이기고 나갔을 때, 실수를 줄였으면 좀 더 편한 경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어렵게 경기를 했다. 그래도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이렇게 비슷한 경기를 하다가 진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이기자고 생각을 해서 다 같이 열심히 뛰었다. 2라운드 시작인 만큼 1라운드 때보다 기록 없는 경기력으로 손발도 더 잘 맞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광주도시공사 오세일 감독은 “제일 걱정한 게 노마크 찬스였다. 찬스 넘어갈 때마다 미스가 나면서 어려웠는데 후반전에는 이런 미스 없이 잘 버텨서 다행이다. 부산전을 앞두고 있는데, 선수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김지현이 30일 광주 빙고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Pay 24-25 H리그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대구시청을 상대로 점프슛을 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최정만, 설날장사대회 ‘꽃가마’

김민재, 2년 만에 백두장사 탈환 최정만, 22번째 금강장사 등극

설날장사대회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의 백두장사 김민재와 금강장사 최정만이 나란히 정상에 올랐다.

김민재는 지난 29일 충남 태안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5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최성민(태안군청)을 3-0으로 제압하며 2년 만에 백두장사 타이틀을 탈환했다.

김민재는 5전 3승제로 치러진 백두장사 결정전에서 첫 판과 두 번째 판에서 연달아 잡채기로 우위를 점한 뒤 세 번째 판에서 되치기로 승리를 확정 지으며 백두장사 13회, 천하장사 2회 등 통산 15번째 꽃가마에 올랐다.

김민재는 결승까지 단 한 판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16강에서는 김동현(용인특례시청), 8강에서는 마권수(문경시청), 4강에서는 박성용(영암군민속씨름단)을 모두 2-0으로 꺾으며 무패로 결승에 진출했다.

지난해 설날 대회에서 아쉽게 장사 타이틀을 놓쳤던 그는 같은 상대와의 결승전에서 설욕에 성공했다.

김민재는 “작년에 같은 자리에서 졌던 상대였기 때문에 더 긴장되고 꼭 이기고 싶었다”며 “부상 없이 같은 기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부담감이 따르지만 기록을 의식하기보다는 매 경기 하나하나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목표는 전관왕이지만, 최소한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는 우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씨름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종목이 된 만큼, 더욱 재미 있는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만은 통산 22번째 금강장사에 등극했다. 그는 이번 대회 금강장사 결정전에서 권진욱(태안군청)을 상대로 3-2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첫 판을 등체기로, 두 번째 판을 경교패로 내주



2025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 정상에 오른 백두장사 김민재(왼쪽)와 금강장사 최정만이 29일 시상식에서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다. <영암군민속씨름단 제공>



2025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 정상에 오른 백두장사 김민재(왼쪽)와 금강장사 최정만이 29일 시상식에서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다. <영암군민속씨름단 제공>

며 배랑 끝에 물렸지만 그는 세 번째 판에서 되치기에 성공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최정만은 네 번째 판에서 잡채기로 동점을 만든 후, 마지막 판에서 다시 잡채기로 승부를 결정지으며 값진 역전승을 거뒀다.

최정만은 “수많은 결승전을 치러봤지만, 이렇게 처음 두 판을 내주고 역전한 경기는 처음이었다. 두 판을 내렸을 때, 감독님께서 나에게 연습할 때처럼 하라고 조언해 주셨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설날 기본 좋은 소식을 전한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오는 2월 중순부터 2주간 제주 서귀포와 경남 산청에서 차례로 전지훈련을 진행하며 기량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정만은 “전지훈련에서는 서로 웃으면서 눈빛에서는 경쟁심이 느껴진다. 금강장사 최다 기록을 넘어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원동력이 된

다”며 “정상을 13년간 지켜온 만큼, 은퇴 전까지 늘 정상에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올해부터 신입 선수들과 함께하며 더욱 탄탄한 전력을 갖추게 됐다. 소백급 김진우, 태백급 문현우, 한라급 이태규, 백두급 백원종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팀 분위기도 한층 활기를 띠고 있다.

김기태 감독은 “훈련 파트너들이 좋아진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팀이 창단 10년 차를 맞이하는 데, 팀워크는 여전히 전국 최강이다. 씨름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구단, 선수단, 서포터즈가 하나로 뭉쳤기에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올해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당구여제’ 김가영, 적수가 없다

LPBA 6연속 우승·36연승...프로당구 남녀 최다 13차례 우승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사진)이 6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무적 행진’을 이어갔다. 김가영은 지난 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끝난 ‘웰컴저축은행 PBA-LPBA 챔피언십’ LPBA 결승전에서 김민아(NH농협카드)를 세트 점수 4-2(6-11 11-9 11-8 8-11 11-7 11-7)로 물리치고 또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8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3차 투어인 에스와이 바자르 하노이 오픈에서 6전 전승으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던 김가영은 8차 투어인 이번 대회까지 6연속 우승과 36연승을 달렸다. 김가영의 프로당구 통산 13승은 남녀 통합 최다 우승이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상금 4000만원을 획득한 김가영은 누적 상금 5억8180만원으로 여자부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렸다.

김민아는 올 시즌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해 우승을 노렸으나 김가영을 넘지 못했다.

한 경기 최고 애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웰컴투랭킹’(상금 200만원)은 64강에서 윤영미를 상대로 애버리지 2.083을 찍은 이우경이 받았다. 경기 초반 양상은 혼전이었다.

1세트를 김민아가 따내고, 2세트와 3세트를 김가영이 가져간 뒤 4세트에 다시 김민아가 승리해 세트 점수는 2-2가 됐다.

승부의 분수령인 5세트에서 김가영은 4이닝과 5이닝에 터진 4득점과 5득점 장타 두 방으로 10이닝 만에 11-7로 승리했다.

그리고 6세트에서는 3이닝까지 6-7로 끌려가다가 경기를 11-7로 뒤집고 또 하나의 우승 트로피를 더했다.

김가영은 경기 후 “정말 좋아서 푼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을 받아서 부담은 늘어난다. 트로피 무게만큼 점점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제 김가영은 다음달 제주에서 열리는 시즌 왕중왕전 격 대회인 월드 챔피언십만 남겨두고 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Cello Moments’

일시 : 2025-02-21(금)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613-8241



환희 환

